



‘선방일기’를 읽고

김홍근(문학평론가)

선객의 내밀한 수행기  
선불교의 뿌리 본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종든 삶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묘하게도 언제나 음양의 두 면을 함께 지닌다. 변화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동반하는 것이다.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정신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간다. 대중 틈에 끼어 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왜? 어디로? 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네트워크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과 함께 최근 정신세계, 특히 불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가장 현실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진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아니 세계를 통틀어 볼 때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를 가장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장 깨어있는 인간들이 존재의 불가사의와 정면으로 맞대결해서 씨름하고 있는 곳, 그 현장은 다름 아닌 선방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방의 전통은 너무나 중요한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이다. 정보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그 가치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난 해 어느 사찰에서의 단기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책을 읽기는 쉽지만 자신을 읽기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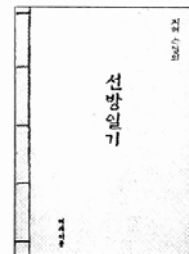
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증은 커져만 가는데, 책만 읽어서는 도저히 그 갈증을 풀 수 없었다. 쏟아져 나오는 책을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다가 이제는 책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싶었다. 책이 다 내 소리가 나고 덮어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문득 문득 산발적으로 마주치던 나와 만남을 좀더 길게 지속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며칠간의 단기수련회는 여를 낫의 짧은 소나기 같아서 일사귀만 적시었을 뿐, 존재의 뿌리는커녕 마른 줄기의 갈증조차도 해소시키지 못했다. 수련회를 마친 뒤, 그 동안 산사에서 겪었던 하루 일과 하나하나가 지닌 상징과 의미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다. 번잡한 불교 이론이 아니라, 선객들의 현실 생활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예불하고, 청스하고, 발우 공양을 하고, 참선하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히게도, 책방을 아무리 뒤져도 선방생활에 대한 증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회 생활인으로서 석 달 동안 계속되는 안거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맹정진의 수행을 체험한 스님들의 경험담이 나와 얻어듣고자 했지만 그에 대한 믿음거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 그때 막 출간된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를 만나게 되었다.

지허(知虛)라는 서예대 출신의 스님이 70년대 초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지내면서 겪은 일과를 솔직히 적어 내려간 이 책은, 수행자의 내밀한 발심과 고독 그리고 선방의 풍속과 생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상의 만남이 성행할수록 오프라인 상의 만남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울해도 참선수련회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정신인의 내밀한 생활 모습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선방일기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다”

20대 미국청년 스노보드 타러갔다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

스노보드를 타러 히말라야로 갔던 20대 미국 청년이 네팔의 선승을 만나 삶의 진리와 깨달음에 눈뜨게 된 과정을 그린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백영미 옮김, 황금가지)가 번역 출간됐다.



추운 1월, 히말라야에서 스노보딩을 하던 청년이 한 노승과 부딪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그 노승은 붓다의 깨달음을 전하는 ‘라에 초르제-프와르’라는 교단의 마지막 스승 프와. 후계자를 만난 스님은 그에게 참선 수행법을 하나씩 전수하면서 깨달음의 경지로 이끈다. 삶이란 무엇인지, 삶이 왜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일러준다.

이 책은 대화를 통해 청년이 깨달음에 대해 서서히 터득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눈 덮인 산악을 배경으로 젊은이와 노승이 풀어 가는 삶의 대화는 때론 다정스럽게, 때론 무게 있게 다가온다. 이 가운데 업(業)에 대한 대화를 살펴보자. 청년이 묻는다. “내가 알고 있는 업은 자신

이 과거에 한 행위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일이라는 것 정도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참 아무말 없던 프와스님은 말한다. “업은 불자들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한순간과 다른 순간, 그리고 한 행동과 다른 행동의 상관 관계가 업이다. 즉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때 청년이 끼어들었다. “업에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업의 시간 어디가에 최초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와스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미소를 짓는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청년은 자신이 생각을 털어놓는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날은 그것이 존재했던 방식에 따라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예전 지은 업의 무한한 때문입니다.” 이때 프와스님은 “바로 그것이 다”며 찬성의 표시로 머리를 끄덕인다.

프와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물이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삶의 외형이 마술을 부린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계속해서, 전도된 생각을 바로잡아 준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다.” 즉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다.” 즉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사고와 관념과 굳어진 생각 때문에 무한한 밝음을 지각하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고 있어도 마음은 환희에 찬 빛의 차원을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는 프와스님은, 명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도달한 삶은 히말라야 눈처럼 비어 있고 순수하다고 말한다. 프와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을 통해 도달한 삶은 우리 앞에 늘 순수한 세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프레더릭 렌즈가 쓴 이 책은 94년 미국에서 출간돼 참선 수행의 불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육신의 죽음은 법신의 탄생

정휴스님 ‘적멸의 즐거움’

선사들 임종게 류어

중국 청황선사는 임종이 다가오자 대중 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초암을 짓고 지내다가 어느날 제자들을 불러 “내가 죽거든 시체를 벌레에게 주라. 절대 탐이나 부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애는 채로 열반했다. 승산선사는 물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선 채로 열반했고, 등은봉선사는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입적했다.

“불교는 죽음을 육체의 소멸로만 생각하지 않고 법신의 회귀로 본다. 그래서 죽음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요 법신의 탄생이요 적멸이다.”

정휴스님(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이 역대 선사들의 입적에 얽힌 이야기와 임종게를 정리한 <적멸의 즐거움>(우리출판사)을 내놓았다.

생사에서 벗어난 옛 선사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탈의 즐거움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보화스님은 관을 선물 받고 당실당실 춤을 추었고, 경통스님은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가 소신공양을 했다. 또 어떤 선사들은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로 가리 참으로 즐겁다고 깨침의 노래까지 불렀다.

이러한 열반의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은 슬픔이 아니다. 즐거움이다. 이처럼 이 책은 옛 선사들의 입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불교적 죽음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한편, 바른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전등록>이 전하는 중국의 선사들과 경허, 만공, 효봉, 경봉, 성철, 월산, 일타스님 등 우리 근현대 선사들의 입적 일화와 임종게가 소개돼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적멸의 즐거움

‘심경’ 뜻 알고 외웠으면...

김사철·황경환 공저 ‘깨달음의 열쇠’

모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농사일을 하든, 육식, 무식, 신봉고함을 막론하고 깨어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 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김사철교수와 황경환씨는 <반아심경> 속에 깨달음의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출간된 <깨달음의 열쇠-반아심경>(한국불교연구원)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쿠키가 암시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요체를 명상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반아심경>을 주제로 깨어나는 길로 가는 데 필요한 이론과 그 이론에 바탕을 둔 실험과 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까지 도식화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고오타마



반아심경

의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도 갑도리란 가장 인물을 등장시켜 실험하고 증명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초의 이 명사가(인도 갑도리)는 다섯 미니 만트라(인도 갑도리)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매일 염송하면서 외우도록 실천하면 반드시 깨어난다고 설명하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앞서 글쓴이는 이 책에서 <반아심경>에 대한 우리나라 불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꼬집는다. 고오타마가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아심경>을 뜻도 모른 채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지만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식의 전달은 고오타마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우리 배달발 <반아심경>을 제시하고 하나씩 해석적 접근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새로 나온 책

▲천태사상연구(이병욱 지음, 경서원) = 천태를 중심으로 중국불교사상의 특징을 밝혀내고 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천태사상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2부에서는 천태사상의 윤곽을, 3부에서는 천태와 화엄의 비교를 시도한다. 천태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은 <마하지관론>이 아니라 <유마경원소>임을 설명한다. 값 2만2천원.

▲아름다운 생활수행(원혜스님 지음, 붓은) = 생활 속에서 간파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 예절과 대중 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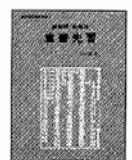
천태사상연구



아름다운 생활수행



반아심경



심경



오른손은 무슨 기쁨을 주며



적멸의 즐거움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닦는 것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예절론이다. 값 5천원.

▲명상? 아~해(조미혜 역음, 한길)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깨어 읽을 수 있는 작은 책. 포켓용 명상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아잔차

스님의 고타마 숲 속의 언뜻과 크리쉬나무르티 및 밀라레빠의 법문에서 발췌한 것. 짧은 구절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값 2천원.

▲동몽선승(전호근 지음, 전통문화연구회) = <동몽선승>을 가르치는 선승님들을 위한 지도서.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 문장의 주석과 출전란을 마련하고, 내용의 배경과 현대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민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레
3	김홍근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 상 섭	시공사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림
5	거지심자	전 재 성	선재
6	지장신왕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림
7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8	선방일기	지 허	역사아문
9	영가천도	일 타	효림
10	갑작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원효사상 연구소

원효사상연구소에서는 금년 4월 첫주부터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합니다.

一 元曉 二 障義(元曉의唯識)매주 월요일 19시부터  
無明治斷悟道成佛의 제 玄裝유식과 비교

二 玄裝 成唯識論(코피아의 오신)매주 목요일 19시부터  
불교의 심리학·인식론·번뇌론·오도·수도론

三 玄奘 金剛經 五家解 매주 토요일 19시부터  
二十斷疑 七大家주석 함허설의 完講(判定起)참고

장소·대학로 원효사상연구소  
연락처·(02)3672-9097  
강사·심재열 소장  
※통신수강가능

공고

귀의 상보하음고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발전에 그동안 기여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립 취지 이념을 되살려 조직을 정비후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원 재취거는 아래 공고 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아래 임원은 허위문서(임시총회회의록) 제출 사유로 문화관광부(문서번호 종일 86210-169, 2000년 3월 2일) 직권으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바, 본회 정관 제13조(선출) ①항에 근거, 2000년 3월 3일부로 정관 제8조(권리),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본회 임원이 아님을 알리오니 현혹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자 명단

직위	성명	사유	직위	성명	사유
이사장	문홍주	허위문서	이사	민수열	허위문서
이사	정이동	허위문서	이사	이철하	허위문서
이사	오경상	허위문서	이사	황의철	허위문서
이사	강정기	허위문서	이사	이상진	허위문서
이사	이성기	허위문서	감사	하철도	허위문서

- 위와같이 자격이 상실된 임원으로 구성된 자칭 집행부에서 대의원 제위계 정기 총회소집문서(문서번호 한불총 2544-04호, 2000년 3월 25일(토) 14시 이외의 37명)를 발송한바 이외의 대의원 대표 자격이 없어 소집권한이 없으며본회 정관 제7조(대의원), 제20조(소집) ①②항에 위배되며, 본회 직인을 날인하지 않은 허위문서로 총회 개최는 구속력과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무효이며, 본회가 소집한 총회가 아니므로 대의원 제위계에서는 참석하지 말것과 유언비어에 착오와 혼동이 없으시길 간곡히 바라며 추후 빠른 시일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기 2544(2000년) 3월 16일

(사)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김기문  
연락처: TEL: (02)738-2888 FAX: (02)738-0449

翠山선생 추모  
아바타 코스가 열립니다.



2천원 세봉에 유서 깊은 사찰에서 아바타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코스가 열릴 봉인사 한길 정진원(경기도 남양주시 건천면 송동리, 주지 적경스님)은 현대식 숙박/교육시설을 갖춘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 수행 도량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봉인사는 선공학(禪工學)으로 불리우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의식개발 프로그램-아바타를 이땅에 소개한 叢翠山박영철 선생의 부도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살기를 열망해 온 이땅의 구도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주 최: 봉인사·한길 정진원
- ▶ 후 원: 미내사·의식개발연구소·정신세계사
- ▶ 기 간: 2000년 4월 8일 오전11시~4월 15일 오후6시까지(7박 8일)
- ▶ 참가인원: 20명 (선착순)
- ▶ 참가비: 170만원 아바타코스 복습자는 40만원-숙식포함
- ▶ 안 내: 이구상, 오전은 ※동참할 아바타 마스터는 연락바랍니다.
- ▶ 신 청: 봉인사 0346)574-5585 의식개발연구소 02)572-1643-4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